

《천도교회월보》에 나타난 일제강점기의 천덕송

김정희*

〈국문개요〉

본고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천덕송에 대해 《천도교회월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천덕송의 역할과 위상 및 시대적 의미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보》에는 악보가 수록된 경우와 노랫말이 수록된 경우, 그리고 천덕송 관련 기사들이 있다. 음악양식에서 부분적으로 5음계나 전통장단 풍의 리듬이 쓰였으며, 대부분의 곡에서 서양음악어법이 지배적이며, 1931년 이후로 기독교의 찬송가식 4성체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신문물 수용은 강조된 반면, 전통은 계승보다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당시의 경향을 보여준다. 노랫말에는 종교적 내용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자존을 회복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나, 1920년대를 기점으로 일제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7.5조의 운율이 번지고 있다. 천덕송은 3대 기념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과 시일식, 행사, 강연회 등에 항상 수반되었으며, 그 양상과 종류가 다양하고 그 위상이 매우 높다. 특히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덕과 교화에 적극적으로 천덕송을 활용하였다. 당시 격변하고 있던 국내외의 동향과 시대적 요구를 교리와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기성 종교의 기복성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통한 자아완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개혁까지 노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천덕송은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시기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근대적 요소는 적극 반영한 반면, 민족적 양식과 전통적 요소는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였다. 이는 천덕송의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주제어: 천도교, 동학, 《천도교회월보》, 천덕송, 일제강점기

* 국악작곡가, 민요연구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

目次

- | |
|--------------------------|
| I. 머리말 |
| II. 《천도교회월보》와 천도교의 주요기념일 |
| III. 《천도교회월보》의 천덕송 |
| IV. 천덕송 관련 《월보》 기사 |
| V. 맺는말 |

I. 머리말

1860년 4월 5일 최제우¹⁾가 창시한 동학(東學)은 시천주(侍天主)²⁾ 신앙에 기초하면서 보국안민(保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포덕천하(布德天下),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내세운 종교로, 서학(西學: 천주교)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우리나라의 도를 의미한다. 최시형(崔時亨)이 1863년 8월 14일 도통을 승계 받아 제2대 교주가 되었으며, 1897년 12월 24일 최시형은 손병희에게 도통을 승계한다. 제3대 교주가 된 손병희(孫秉熙)는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天道教)로 개칭하였으며,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을 천도교의 종지(宗旨)로 선포하였다.

《천도교회월보(天道教會月報)》³⁾는 1910년 8월 15일에 창간된 천도

1)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3.10.): 조선 말기의 종교사상가로 민족 고유의 경천(敬天) 사상을 바탕으로 유(儒)·불(佛)·선(仙)과 도참사상, 후천개벽사상 등의 민중 사상을 융합하여 동학(東學)을 창시하였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7450&cid=40942&categoryId=33383>

2) ‘시천주(侍天主)’는 ‘내 몸에 한울님을 보시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천도교 제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에 의해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구체화되며, 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한울과 사람과 물건을 모두 공경해야 한다는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의 삼경(三敬)사상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제3대 교주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의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이어진다. 윤석산, 『천도교』,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2, 40~49쪽 참조.

3) 이하 본문에서 《월보》로 줄여 쓰겠다. 《월보》의 내용, 창간 및 폐간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교의 월간 기관지로, 교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문화적 내용과 생활정보까지 포괄하는, 계몽적 성격의 종합교양지이다. 《월보》는 대다수의 간행물이 창간 후 얼마가지 못하여 폐간되곤 하던 일제강점기에 1938년까지 통권 300호를 넘게 발행된 드문 사례이다. 또 당시 천도교에서 전개된 포덕(布德)사업과⁴⁾ 교육사업, 3.1운동을 정점으로 하는 독립운동, 이른바 ‘신문화운동’으로 통칭되는 청년운동·출판문화운동·어린이운동·여성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근대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천도교 내에서 발간된 《개벽》·《신여성》·《어린이》·《별건곤》·《학생》·《혜성》⁵⁾ 등 다양한 잡지의 모태이기도 하다.

《월보》는 민족의 암흑기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기에 민족의 역량을 키우고자 분투하였던, 우리 내부로부터의 서광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월보》의 가치와 위상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소설이나 당시 민중들의 상황, 영적 체험담에 관한 논문이 소수 있을 뿐이다.⁶⁾

‘천덕송(天德頌)’은 한울님의 덕을 찬송(讚頌)하는 노래로, 천도교의 각종 의식과 행사에 수반되며,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심(信心)을 돈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른다. 《월보》에는 천덕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4) 천도교를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포덕(布德)’이라고 한다.

5) 개벽사에서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종합잡지 《개벽》을 발간하였고, 1922년에는 여성잡지 《부인》을 창간하여 1923년 이를 《신여성》으로 교체하였다. 1923년 3월 20일에는 어린이잡지 《어린이》를, 1926년 11월 1일에는 취미잡지 《별건곤》을, 1929년 3월 1일에는 학생잡지 《학생》을, 1931년에는 시사종합지 《혜성》을 창간하였다. 그 외에도 개벽사의 《제일선(第一線)》(1932.5.20.), 《신경제(新經濟)》(1932.5.), 조선농민사의 《조선농민(朝鮮農民)》(1925.12.13.) 등의 잡지가 발간되었다. 출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6, 264~278쪽 참조.

6) 우수영, 『천도교회월보(天道教會月報)』 수록 소설의 담론 전개, 《현대소설연구》 제6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287~324쪽; 김정인, 「1910년대 『天道教會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韓國文化》제30집,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 309~332쪽; 박상란, 「근대전환기 영적담(靈蹟談)의 양상과 의의-『천도교회월보』 소재 “영적실기(靈蹟實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5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121~159쪽 등.

산견되는데, 현재 전승이 끊기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없는 곡들도 보인다. 또 당시 천도교의 종교, 정치, 사회적 활동의 면면이 《월보》에 잘 기록되어있는데, 천덕송 또한 그러한 교단 내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동학음악 또는 천덕송(天德頌)에 관한 몇 편의 선행연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기에 따른 천덕송의 변천양상 및 타 신생종교음악과의 비교연구 등은 일정 정도 규명된 바가 있다.⁷⁾ 그런데 《월보》에 나타난 천덕송 및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선행연구 중 일부 잘못된 정보도 있다. 특히 《월보》 내의 다양한 천덕송 관련 기사들은 당시 천덕송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사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천도교회월보》 수록 천덕송 및 관련 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천덕송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고찰하며, 천덕송의 역할과 위상 및 그 시대적 의미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것이다.

먼저 《월보》와 천도교의 기념일 및 행사에 대해 살펴보고, 《월보》에서 천덕송의 악보와 노랫말, 그리고 관련 기사를 찾아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범위는 현재 영인본으로 남아있는 《월보》 제1호(1910.8.15.)부터 제296호(1937년.6.15.)까지이다.⁸⁾ 원문을 인용할 때는 오타나 띄어쓰

7) 김광순, 「東學音樂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최민국, 「東學音樂과 龍譚遺詞研究」,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변규백, 「신종교와 음악」, 《신종교연구》 제7집, 한국신종교학회, 2002, 52~69쪽; 김찬기, 「천도교음악(천덕송) 형성과정의 연구」,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제1집, 제2권,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2011, 152~164쪽 등. 뒤의 세 편의 논문은 모두 김광순의 논문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여 쓰였다. 김광순의 석사논문은 이후 《음악과 민족》, 제8집, 1994, 60~78쪽 및 제9집, 1995, 173~191쪽에 요약, 수록되었다.

8) 천도교 내 신파와 구파의 분규로 인해 1926년 4월부터 신파 쪽이 기관지 《신인간》을 창간하면서, 천도교의 기관지가 《월보》와 《신인간》으로 양분된다. 따라서 1926년 이후의 천도교 내 동향은 그 이전과 다른 흐름을 갖게 될 것이나, 두 기관지의 비교 검토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기의 수정을 하지 않고 원문의 텍스트를 그대로 옮길 것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설명을 덧붙이겠다.

II. 《천도교회월보》와 천도교의 주요기념일

1. 《천도교회월보》

《월보》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폐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⁹⁾ 최초의 천도교기관지는 《만세보(萬歲報)》로, 1906년 6월 17일 창간하였다. 이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계몽적 성격의 일간신문이면서 천도교 기관지의 역할을 겸하였다. 사장은 오세창, 발행인 겸 편집인은 신광희, 주필은 이인직으로, 신소설의 효시인 이인직의 「혈(血)의 누(淚)」, 「귀(鬼)의 성(聲)」 등을 연재하였다. 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907년 6월 29일자(293호)로 폐간하였다.

《만세보》 폐간 후 3년 만인 1910년 8월 15일, 천도교의 새 기관지인 월간 《천도교회월보》가 창간된다. 창간호 발행일자의 연호는 ‘융희(隆熙)’로 표기되어 있으나, 불과 1주일 후 강제 합병으로 말미암아 제2호부터는 일본연호인 ‘명치(明治)’로 표기된다.

내용은 크게 교문정의(教門訂議)·교리부(教理部)·학술부(學術部)·기예부(技藝部)·물가부(物價部) 등으로 나뉘며, 그 외 논설 등이 포함된다. 학술부에는 지리·역사·물리·화학·지문학(地文學)¹⁰⁾·경제·농업·임업(林業) 등 폭넓은 분야의 강의가 수록되고, 기예부에는 시·

9) 이하 본 항의 내용은 『천도교약사』, 129~141쪽, 222~223쪽 및 김용조, 「천도교 기관지 변천사」, 《신인간》 통권 제700호, 서울: (주)신인간사, 2009, 60~75쪽을 참조하였다.

10) 지문학(地文學): 지구와 지표 가까이의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Daum한국어 사전. 이하 이 사전에서 참고한 내용은 사이트정보를 생략한다.

수필·소설 등의 내용이 실렸다. 그 외 세계의 종교에 대한 소개, 서양철학 강의, 생활정보, 외국어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통권 제12호부터는 언문부를 신설하여, 한자에 익숙지 않은 교인들을 배려했다.¹¹⁾

《월보》의 이러한 면면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여 민족적 역량을 키우고자 한 천도교 지도층의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월보》가 단순히 교회의 기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 계몽을 위한 종합교양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국내외의 동향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며, 《월보》의 뒷부분에는 중앙총부회보(中央總部彙報) 및 지방통신(地方通信) 란을 두어 교단 내의 근황 및 공지사항 등을 알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교단 내의 흐름뿐 아니라 천도교를 둘러싼 정세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한국근대사 연구에 있어 《월보》가 가지는 자료적 가치는 지대하다 하겠다.

이후 천도교 내에서 신·구과 사이의 분류가 일어나 신파와 구파가 각각 중앙총리원을 만들면서, 1926년 4월부터 《월보》는 구파의 기관지가 되고, 신파는 《신인간》을 창간한다. 《월보》의 폐간까지 천도교 내에서 두 종류의 기관지가 발행된 셈이다.

《월보》는 현재 1937년 6월호, 통권 제296호까지 영인본으로 확인되며, 폐간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폐간과 관련하여, 영인본 제26권 마지막 면에는 1938년 9월 15일이라 기록되어있는데, 《월보》가 순조롭게 발행되었다면 이는 통권 311호가 된다. 또 『天道教會月報 影印本目次』 머리말에는 315호까지 냈다는 증언이 실려 있는데, 이는 1939년 1월호가 된다. 다른 하나는 1938년 3월에 폐간되었다는 추측인데, 이는 통권 305호가 된다. 박인호의 주도하에 1936년 8월부터 구과에서 비밀리에 추진해온 멀췌

11) 기예부는 제1호에만 분리되어있고, 제2호 이후 그 내용은 학술부에 이어 사조(詞藻)·단편소설·기서(奇書)·잡조(雜俎) 등의 소제목 하에 실린다. 물가부도 제1호에만 분리되어있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학술부는 제24호까지 분리 수록된다. 제116호부터는 그러한 구분 없이 소제목 하에 모든 내용이 실린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광순, 『天道教會月報 影印本目次』, 서울: 天道教中央總部, 1980, 참조.

기도운동(減倭祈禱運動)이 1938년 2월에 발각되어 교인 수백 명이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데, 이 사건으로 구과의 천도교대헌이 폐기되고 구과계열 총부 간부진까지 거의 전원 강제 교체된다. 이 일로 인해 기관지였던 《월보》가 폐간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¹²⁾

교단 내의 분규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호도 얼마 없이 3백여 호를 발행한 《월보》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잡지 중 가장 장수한 잡지이다.¹³⁾

2. 천도교의 주요기념일

기념일이나 행사는 천덕송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당시의 천도교 기념일과 행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⁴⁾

1) 3대 기념일

‘천일(天日)기념일’, ‘지일(地日)기념일’, ‘인일(人日)기념일’은 천도교의

12) “影印을 마치고 一. 本月報의 最終號가 第몇號인지는 現存本이 없으므로 不得已 第二十六冊(通卷第二九六號)로서 一段完結하고, 二. 缺號와 第二九七號부터 終刊號까지는 繼續 搜聞中이므로 앞으로 入手되는 대로 一括하며 補遺篇을 發刊할 豫定임. 三. 本月報는 一九三八年 九月 十五日에 發行許可가 失效되어 廢刊됨(朝鮮 出版警察概要 一九三九年 第八五面) (參考) 新聞紙法 一九〇七年(光武十一年) 七月 二十七日 法律第一號 第九條 發行許可의日 又난 申告에係한 發行停止의 最終日로부터 二個月을 過하여 發行치 아니하난 時난 發行許可의 效力을 失함. 申告가 無하고 發行을 停止하여 一週日을 過한 時도 亦同함.” 영인본 『天道教會月報』 제 26권, 서울: 天道教中央總部, 1976, 741쪽.

“천도교회월보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296호가 최종호로 되어있다. 315호까지 냈다는 故李乙翁의 증언은 있었으나 아직 이 이상의 호수는 찾지 못했다.” 『天道教會月報 影印本目次』, 1쪽.

13) 일제에 의해 압수된 경우와 교단 내 분규로 인해 1925년 9~11월호가 발행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달 발행되었다. 『天道教會月報 影印本目次』, 1쪽 ‘영인합본판 내역’ 참조.

14) 이하 본 항의 내용은 『천도교약사』 145·151쪽 및 280~284쪽과, 이동초 편저, 『天道教會 宗令存案』,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5, 참조.

3대 기념일이다. ‘천일(天日)’은 4월 5일, 최제우가 득도한 창도기념일이고, ‘지일(地日)’은 8월 14일, 제2세 교주 최시형이 승통한 날이며, ‘인일(人日)’은 12월 24일, 제3세 교주 손병희의 승통일이다.

먼저 1908년 5월에 음력 4월 5일을 천일로, 최제우 순도일인 음력 3월 10일과 최시형 순도일인 음력 6월 2일을 지일로 정하였다. 그 후 1909년 2월부터 음력으로 거행하던 기념식을 같은 날짜의 양력으로 거행하도록 공포한다. 그리고 1909년 10월에는 종전의 지일인 3월 10일과 6월 2일은 명칭을 폐지하고, 3대 기념일을 다시 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2) 그 외 기념일과 기도일

‘교일(敎日)기념일’은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여 선포한 12월 1일로, 현재는 ‘현도(顯道)기념일’이라 부른다. ‘도일(道日)기념일’은 박인호가 대도주로 지명된 1월 18일이다. 최제우 순도일(3.10.)은 ‘제1대 기도일’, 최시형 순도일(6.2.)은 ‘제2대 기도일’이다. 교일기념일과 기도일은 1909년 10월 3대 기념일 공포 시에 함께 지정되었다. 그 외 손병희 환원일(5.19.)¹⁵⁾이 있다.

3) 기타 행사일

1906년 2월 천도교중앙총부 설립과 동시에 매주 일요일을 시일(侍日)로 정하였다. 처음에는 기념식과 시일식을 오전 10시에 시행했으며, 시일식을 ‘성화회식(聖化會式)’이라 하였다. 현재는 시일식과 각 기념식을 오전 11시에 거행하고 있다.

‘어린이의 날’은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 창립1주년을 맞아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근간이 되어 이듬해에는 전국의 각종 소년단체가 모여

15) 천도교에서는 임종을 ‘환원(還元)’이라 한다.

‘조선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이날을 ‘어린이날’로 선포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어린이날이 메이데이와 겹치고 평일 학교 수업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매년 왜경이 행사를 방해하자, 1928년부터는 어린이날을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한다.¹⁶⁾

그 외 최제우 탄생일(10.28.), 최시형 탄생일(3.21.), 손병희 탄생일(4.8.), 박인호 탄생일(2.1.) 등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⁷⁾

<표 1> 천도교의 기념일 및 주요 일정

명칭	날짜	내용
천일기념일	4.5.	최제우 득도일(동학 창도일)
지일기념일	8.14.	최시형 승통일
인일기념일	12.24.	손병희 승통일
교일기념일	12.1.	천도교 공포일(현재는 현도기념일)
도일기념일	1.18.	박인호 대도주 승임일
제1대 기도일	3.10.	최제우 순도일
제2대 기도일	6.2.	최시형 순도일
의암성사 환원일	5.19.	손병희 환원일
대신사 탄신일	10.28	최제우 탄생일
해월신사 탄신일	3.21.	최시형 탄생일
의암성사 탄신일	4.8.	손병희 탄생일
춘암상사 탄신일	2.1.	박인호 탄생일
시일	매주 일요일	각 교구에서 시일식을 모시는 날
어린이날	5.1/5월 첫 일요일	어린이를 위한 날

16) 날짜 변경을 결정한 것은 1927년이며, 시행된 것은 1928년이다. 『천도교약사』, 284쪽 참조.

17) 연구범위 내의 기념일만 간추린 것이다.

Ⅲ. 《천도교회월보》의 천덕송

현재 천도교 경전에 수록된 천덕송은 ‘천덕송’과 ‘송가’로 나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천도교단 내에서 부르는 모든 공식적인 노래를 천덕송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¹⁸⁾ 먼저 《월보》에 악보와 함께 수록된 천덕송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노랫말만 수록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1. 악보가 수록된 천덕송

<악보 1>은 ‘천종신악(天宗新樂)’ 제1장 <하늘님의덕>으로, 《월보》에 최초로 수록된 악보이다.

<악보 1> 제3호(1910.10.15.) 45쪽:
天宗新樂 데일장 <하늘님의덕>

天宗新樂
데일장 하늘님의덕

하늘님의 저주로 덕 거룩거룩 하시 또 더
우리들 을 사랑하 사 권이질 곳 모든시 그
일월성 신 드르민 사 빛파덕 음 주인 후 의
공유상 실 세로초 아 사서거 후 영할 시 그
원용소 물 권위한 사 우리들 을 기르시 니
거룩할 그 거룩한 덕 영원송 즉 강함 세 더

18) 천덕송 수록 책자를 지칭할 때는 ‘천덕송’으로 표기하겠다.

한울님의 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월보》 제3호에 오선보로 기보되었다. ‘천중신악’은 당시 천덕송을 지칭하던 또 하나의 용어이다. 노랫말은 4.4조의 운율이며, G장조 조표에 4/4이고, 종지구 선율 mi-re-do-Si-do에서 Si가 1회 쓰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율은 모두 반음이 없는 5음계로 되어있다. 이 곡은 현재 『천도교경전』 「천덕송」¹⁹⁾ 51쪽, 제28장 <한울님의 덕> 1절과 노랫말이 같으며, 선율도 거의 같다. <악보 2>는 제122호에 수록된 <우리의길>이다.

<악보 2> 제122호(1920.10.15.) 77쪽: <우리의길>

우 리 의 길

한 마음 한 뜻 한 밭 갖 탁야 주 이 나 뫼 이 나 모 도 다 하 나

한 한 울 정 신 으 로 모 힌 우 리 百 五 열 주 들 훈 선 에 셴 곳

	五	四	三	二	一							
우	八	동	虛	너	功	過	한	萬	百	한	千	한
리	面	心	가	德	失	人	人	五	한	五	千	
의	面	이	物	나	이	이	의	의	念	울	念	이
의	玲	과	慾	나	이	이	의	의	珠	精	精	이
精	理	맛	이	를	나	거	가	진	珠	神	萬	한
神	한	기	太	에	來	기	天	진	天	이	이	뜻
은	岳	如	陽	속	緣	돈	性	아	性	한	으	로
五	山	意	法	디	이	서	아	로	아	로	로	모
萬	이	表	度	마	나	로	나	로	우	로	모	도
年	다	裏	되	사	자	觀	가	가	셴	로	도	다
일	할	갓	야	당	나	하	갓	갓	우	로	도	다
세	서	시	세	나	세	고	터	터	리	로	도	다
	서	저	저	나	나	고	너	너	하	로	도	다
	서	저	저	당	나	고	너	너	하	로	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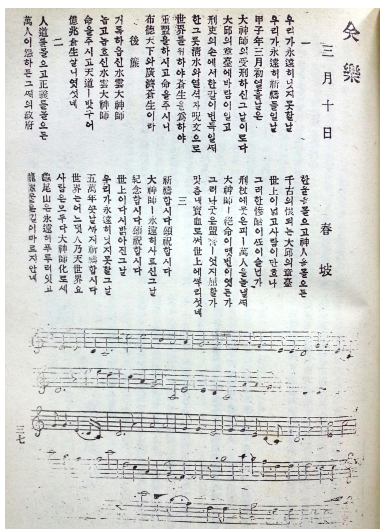
七七

19) 이하 ‘경전 「천덕송」’으로 줄여 쓰겠다. 천도교중앙총부 편저, 『天道教經典』,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1, 51~52쪽 참조. 이하 이 경전에 수록된 악보의 서지 정보는 생략한다. 『천도교경전』은 「동경대전(東經大全)」, 「용담유사」, 「해월신사 법설(海月神社 法說)」, 「의암성사 법설(義菴聖師 法說)」이 순서대로 우에서 좌로 수록되어있고, 「천덕송」은 제일 끝면부터 좌에서 우로 실려 있다. 경전 「천덕송」은 천덕송과 송가로 나뉘어있다.

교인들의 단합과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 등을 노랫말에 담았다. 운율은 5.5조를 기본으로 하여 4자에서 8자까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구절이 뒷구절보다 길거나 같다는 점에서 7.5조와 섞인 듯하다.²⁰⁾ D장조 조표에 4/4이며, 무반음 5음계로, 일제강점기 전후로 유행하던 창가풍의 곡이다. 이 곡은 경전 「천덕송」 39쪽, 제18장 <우리의 길>의 원곡이나, 다만 현재 부르는 노래는 각 음표의 음가가 <악보 2>보다 2배로 길게 기보되어있으며, 제5절은 부르지 않는다.

<악보 3>과 <악보 4>는 1921년 2월호와 3월호에 수록된 ‘천악(天樂)’ <삼월십일기도가(三月十日祈禱歌)>이다.

<악보 3> 제126호(1921.2.15.) 37쪽: 天樂
<三月十日> / 春坡



20) 7.5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율도 제1~11마디까지가 거의 같다.

천덕송 대신 ‘천악(淸樂)’이라는 용어가 이 곡에서 처음으로 쓰였는데, ‘淸’자는 자전에 나오지 않는 글자이다. 이 글자에 대해 《월보》 제67호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제67호(1916.2.15.) 3쪽: 敎理部 / 淸象觀義²²⁾ (並序) / 崔安國

淸은 人乃天之天也니 卽 天道教 三一之意也라 天道教 - 傳統于神聖三師하야 以人乃天爲宗旨 而布德于天下홀식 三師宗傳이 有 三經하니 曰 天宗 道宗 敎宗之三大法經이라.....(淸은 ‘인내천’의 ‘천’이니, 즉 天·道·敎 셋이 하나라는 뜻이다. 천·도·교 - 세 분 스승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와서, 인내천으로 중지를 삼아 포덕천하할 새 세 스승님의 으뜸가는 설법으로 세 경전이 있으니, 가로되 천종, 도종, 교종의 3대 법경이라.....)

즉 ‘淸’자는 ‘人乃天’을 뜻하는 글자로, 人과 天을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최제우의 ‘待天主’는 동학의 핵심 교리이며, 손병희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人乃天’을 도의 중지(宗旨)로 선포한다. ‘淸’자는 ‘人乃天’을 세로로 쓰면서 가운데 ‘乃’자를 생략한 형태로, 인내천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자이다. 《월보》에서는 이 ‘淸’자를 ‘天’자와 구분하여 쓰고 있으며, ‘淸樂’이라는 용어 아래 뒤에 살펴볼 <五款歌>와 <공락가(共樂歌)>까지 모두 세 곡이 수록되어있다.

<악보 5>는 제127호에 <삼월십일기도가>와 함께 실린 <오관가(五款歌)>이다.

22) 이 ‘淸象觀義’라는 글은 《월보》 제67~72(1916.7.15.)호까지 연재된다. 제70호에는 빠져있다. 또 제76호(1916.11.15.) 9쪽에는 같은 필자의 ‘淸憲要義’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제77호와 제79(1917.2.15.)호에도 이어진다.

<악보 5> 제127호(1921.3.15.) 30쪽: <五款歌>

‘오관(五款)’은 천도교 의례의 기본인 주문·청수·시일·성미·기도를 이르는 것으로, 천도교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정성을 뜻한다.²³⁾ 운율에는 7.5조가 좀 더 많이 보이나, 후렴구 ‘한울님의 거룩하신 힘과...’ 부분은 7.5조에서 확연히 벗어나있다. C장조 조표에 4/4로 기보되

23) 1911년 3월에 대종사(大宗司)의 공함(公函)에 의해 기본규칙이 생기고, 1918년 1월에 시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주문’은 13자 주문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를 무시로 외울 것, ‘청수’는 매일 오후 9시에 가정에서 기도식을 올릴 것, ‘시일’은 매주 일요일 상오 11에 교당에 모여 기도하며 설교를 들을 것, ‘성미’는 아침·저녁 밥 지을 때 식구 수대로 쌀 한 술씩 뜰 것, ‘기도’는 매 시일 하오 9시에 청수와 쌀 5홉을 받들고 가족 일동이 모여 기도식을 거행하고 21자 주문(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다섯 번을 묵송할 것 등이다. 『천도교약사』 148~149쪽 참조. 현재는 시일 저녁 9시 기도에서 신사주문(神師靈氣我心定 無窮造化今日知)을 105회 묵송한다.

어있으며, 반음이 없는 5음계이다. 이 곡은 경전 「천덕송」 36쪽, 제16장 <오관가>와 노랫말은 같으나 선율이 다르다.

<악보 6>은 1921년 4월호에 수록된 천악(舜樂) <공락가(共樂歌)>로, 《월보》에 수록된 마지막 악보이다.²⁴⁾

<악보 6> 제128호(1921.4.15.) 25쪽: 舜樂 <共樂歌>

樂 舜

歌 樂 共

舜 樂

四、	三、	二、	念 後	一、
花 天 天 舍 天 弓 世 天 天 念 後 天	紅 道 道 喃 道 乙 戰 道 道 天 天 天	草 道 道 赫 道 乙 戰 道 道 天 天 天	綠 道 道 赫 道 乙 戰 道 道 天 天 天	紅 道 道 赫 道 乙 戰 道 道 天 天 天
부 綠 綠 로 和 하 세 人 類	크 綠 綠 로 和 하 세 人 類	깃 綠 綠 로 和 하 세 人 類	네 綠 綠 로 和 하 세 人 類	에 綠 綠 로 和 하 세 人 類

二五

24) 김광순의 「東學音樂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제59쪽에는 “1921년 1월~3월에는 <天樂>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五款歌>, <大神師 還元 祈禱歌>, <共樂歌>가 오선악보를 사용하여 발표되었다.”라고 써어있으나, 1월~3월이 아닌 2월~4월이다. 그리고 ‘天樂’과 ‘舜樂’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天’은 ‘한울님’을 뜻하며, ‘舜’은 ‘人乃天’을 뜻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잘못된 정보들은 본론의 논지전개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해 이후로도 각주에서 바로잡도록 하겠다.

천도교의 새 세상에서 다함께 즐기자는 내용으로, 운율은 4.4조와 7.5조가 섞여있는 양상이다. C장조에 4/4이다. 이 곡은 경전 「천덕송」 38쪽, 제17장 <공락가>의 원곡이며, 각 절의 종지구와 후렴 선율 일부가 현재와 약간 다르다.

이상 악보와 함께 수록된 5곡의 천덕송 중 <하늘님의덕>은 악보와 가사를 같이 수록했으며, <우리의길>은 악보에는 제1절만 붙이고, 제2~5절은 분리해서 적었다. <삼월십일기도가>·<오관가>·<공락가>는 모두 악보와 가사를 분리 수록했다. 기보체계가 뒤로 갈수록 더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의문이며, 이후로는 악보 없이 노랫말만 수록된다.

악보가 수록된 천덕송은 노랫말에 종교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5음계 위주이나, 전통어법보다는 5음계 장조(penta-tonic Major scale)에 해당한다. 전통음악에 쓰는 5음계는 지역별, 갈래별로 특유의 선율진행 및 시김새 특성을 보이는데, 이 곡들은 그러한 특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²⁵⁾ 그 외 오선보에 기보된 점과 서양음악 장조의 관용적 종지선율이 주로 쓰인 점, 모두 전통장단이 아닌 양악의 가장 보편적 박자구조인 4/4를 쓴 점으로 보아 양악작곡가 등 서양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작곡했을 가능성이 높다. 5곡의 음악적 요소가 비슷한 점으로 보아 한 명이 모두 작곡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5음계를 쓴 것은 천도교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²⁶⁾

25) 선율진행에서 특정음이 생략된다든지, 특정구성음에 요성이나 퇴성이 수반된다든지 하는 특성을 말한다. 예컨대 판소리나 산조에서 주로 쓰는 전라도의 육자배기조는 Mi·La·do(Si) 세 음 위주로 선율이 전개되며, do는 퇴성하거나 Si로 단2도 꺾으며, Mi는 길게 떠는 특성이 있다. 반면 평안도와 황해도 민요에서 주로 쓰는 수심가조는 Re·Mi·Sol·La·do의 구성음 중 Sol을 생략하고 La를 아래로 깊이 떠는 특성이 있다. 《월보》 수록 천덕송에서는 이러한 음조직적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

26) 이러한 점은 당시 대표적 서양음악작곡가 중 한 사람인 홍난파가 쓴 천덕송에서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살펴볼 것이다.

2. 가사만 수록된 천덕송

1921년 4월 뒤로는 《월보》에서 악보가 보이지 않고 가사만 산견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운율과 노랫말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다.²⁷⁾

제71호(1916.6.15.) 언문11쪽: <오관노리 五款歌> / 元明濬

오만년 기벽운수 시호시호도홀시고 / 경신스월초오일에 무극대도처음난네
턴중신사턴명밧아 한울곤쳐얼으시고 / 도중신사도통니어 쌍울곤쳐덩흐시고
교중성사교법밧아 사름곤쳐살니시네 / 삼세스승삼지리터 다시기벽이안인가
삼지등에참여하야 스승교훈밧는우리 / 스승은덕모를쇼냐 그은덕을감홀야면
성경신법일치말고 겸심슈도하여보세 / 무엇으로슈도흐노 오관밧게다시업네
..... (*이하 ‘주문, 청슈, 시일, 성미, 기도’의 순으로 가사가 기록됨.)

이 곡은 <악보 5>의 <五款歌>와는 노랫말이 전혀 다르며, 현재는 불리지 않는다. 위의 인용 부분은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어서 오관(五款)에 대한 상세한 노랫말이 이어진다. 운율은 4.4조이다.

다음은 <무극송>이다.

제113호(1920.1.15.) 언문13~14쪽: <무극송> / 無極子

一.무극흐신한우님이/무극무극무극일사/무극흐신티신사여/무궁무궁무궁일사
二.한우님과티신사는/영세불망일체신가/나리섯네나리섯네/한우님이나리섯네
(*이하 12절까지 있음. 이후 제120호까지 같은 필자가 쓴 같은 제목의 글이 비슷한 내용과 같은 운율로 연재됨.)

<오관노리>와 <무극송>은 매우 긴 연곡으로, 모두 4.4조의 운율로 되

27) ‘<곡명> / 작사가’ 순으로 표시하였다. ‘언문11쪽’은 언문부의 11쪽을 뜻한다. 인용문 아래 *로 시작되는 괄호 안의 설명은 필자의 주이다. 《월보》에서 악보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볼 것이다.

어있다.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기존의 용담유사²⁸⁾와 같이 낭송조로 부르는 노래이거나, 하나의 선율에 계속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개사곡(改詞曲) 형태의 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사곡 형태의 곡이 제134호에도 보이는데, 모두 4.4조이다. 이 곡들은 현재 불리고 있는 천덕송과 곡명 및 노랫말이 일치한다.

제134호(1921.10.15.) 12쪽: 천덕송은 또한 진리

데오절 = 46쪽 제24장 <천덕사(기2)>의 제5절²⁹⁾

턴덕일사턴덕일사 거룩하신턴덕일사 / 무극대도밖은리치 사람이곳한울이라
사람마다수족동정 이는역시귀신이오 / 선약간에마암용사 이는역시귀운이오
말을하고웃는 것은 이는역시조화로세 (*제13절까지 있음)

<탄신기념송> = 49쪽 제25장 <탄신기념송>

잊지마세잊지마세 턱덕사는잊지마세 / 무왕불복후턴운수 우리스승나섯도다
수심정기눔흔공부 턱인합덕되엿더라 / 각자위심그사람을 동귀일테시키시네
세계극락동포들아 잊지못할오날일세

<수도기념송> = 49쪽 제26장 <수도기념송>

잊지마세잊지마세 턱덕사는잊지마세 / 만고업는무극대도 억조창생건지시네
로이무공한울님이 오날날에성공일세 / 사람마다한울되니 원세상이극락일세
오만년이무궁토록 잊지못할오날일세

28)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하기 위해 지은 한글 가사로, 용담가(龍潭歌)·안심가(安心歌)·교훈가(敎訓歌)·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도수사(道修詞)·권학가(勸學歌)·도덕가(道德歌)·흥비가(興比歌)의 가사 8편과 검결(劍訣)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곡들은 민요풍 또는 낭송조로 구전되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29) 왼쪽은 《월보》의 곡명, 오른쪽은 경전 「천덕송」의 쪽수와 곡명이다. 《월보》영인본에는 12~16쪽이 누락되고 17쪽 ‘데오절’부터 있어 제1~4절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5~13절 노랫말이 현재 부르는 곡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누락된 제1~4절도 현재곡과 같았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곡명도 현재곡과 같은 <천덕사>일 것이다.

<환원기념송> = 50쪽 제27장 <환원기념송>

잊지마세잊지마세 턱덕사는잊지마세 / 포덕턴하하실마암 무극대로창명하고
 광제창생하실마암 중한신명맞치섯네 / 이마암을밧아다가 턱덕사는갑하보세
 한울속에서는사람 잊지못할오날일세

상기 곡들은 <주문>의 선율에 붙여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74년 천덕송 신편 보완 시에 <주문>과 세 곡의 기념송을 함께 채보 및 편곡하여 수록하였는데, 모두 같은 선율이기 때문이다.³⁰⁾ <악보 7>은 1974년의 편곡 악보로, 현재 경전 「천덕송」 6·45·49쪽에 수록되어있는데, <주문>과 key만 다르고 동일한 선율이다.

<악보 7> 경전 「천덕송」의 <주문>, <천덕새기>, <탄신기념송>

6 주문 (3회)

엄숙하고 정중하게

시 천 주 - 조 화 정 - 영 세 불 - 망 만 사 지 -

제23장 천덕사 (기 1)

45

1. 천 덕 일 사 천-덕 일 사 거-룩 하 신 천-덕 일 사
 경 신 사 월 초-오 일 에 후-천 개 벽 되-었 더 라

30) 김광순, 앞의 논문, 87쪽 참조.

제 25장 탄신기념송

49



<주문>은 천덕송 중 가장 유서 깊은 곡이라 할 수 있으며, 천도교의 각종 의절에서 청수봉전, 심고 다음에 반드시 모든 참가자가 3회 병송하는 것이 관례이다. 악보 상으로는 4/2로 기보되어있지만, 실제 천도교당에서 부를 때 3음절은 대체로 상당히 느린 2·2·3박 정도의 호흡으로 부르고, ‘영세불망’은 2·2·2·2의 호흡으로 부른다.

<악보 7>은 화성법에 의거하여 4성으로 편곡되어있으나, 일반적인 장조 선율과는 거리가 있다. 조표상의 구성음은 do·re·fa·sol이나, 이는 Sol·La·do·re와 같은 배열이다. 선율골격은 Sol·do·re의 완전4도+장2도 구조로, 이는 풍류방에서 가객들이 즐겨 부르던 가곡의 계면조, 또는 시조의 구성음 黃·仲·林과 일치하는 구조이며, ‘조’, ‘영’, ‘불’, ‘만’에서 보이는 짧은 수식음들도 전통음악에 흔히 쓰이는 잔가락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곡은 전통어법에 바탕한 곡으로 볼 수 있다.³¹⁾

천도교의 핵심진리를 담은 가장 중요하고 유서 깊으며, 다른 여러 곡의 모체가 되는 <주문>이 1974년 이전까지 「천덕송」에 실리지 않은 이유는, 이 곡이 일상적으로 불리어 이미 모든 교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책자 형태의 「천덕송」은 1921년과 1931년에 발간되는데,

31) 김광순의 「東學音樂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29쪽에는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율의 출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작자 미상의 민요나 혹은 독창곡으로 추정된다. 한편, 궁중에서 사용하던 궁중의식 음악으로 임금이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임금의 모습이 보일 때부터 좌정할 때까지 사용하였던 음악의 선율 중 일부분이라고 口傳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궁중음악에는 이와 유사한 선율은 보이지 않으며, 아마도 품격 있는 선율과 느린 한배로 인해 그런 인식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경전 「천덕송」, 46쪽의 제24장 <천덕사(기2)>는 장조로 된 20마디의 긴 곡으로, 이는 작사·작곡·시기가 미상인, 새로 작곡된 곡이다.

이 때의 발간목적은 ‘새로운 천덕송의 보급’이었고, 따라서 이미 모든 교인이 익숙하게 부르고 있던 곡들은 굳이 따로 수록할 필요를 못 느낀 것으로 보인다.³²⁾

이상의 노랫말들은 모두 4.4조의 곡이며, 앞서 살펴본 악보의 곡들과 같이 종교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후로는 노랫말에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아래는 그 대표적인 예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제164호(1924.5.15.) 25쪽: <거룩한노동> / 의주 한빛

3, 안저놓고 먹는인생 안된놈이 분명하고 / 씹을흘려 버는사람 착한사람
분명권만 / 악한놈을 귀타하고 착한이를 천타함은 / 어찌하여 그러한가 모를
네라 그연고는 / 그림으로 사람마다 놀기로만 일삼으니 / 그종류만 만허짐이
이런까닭 아니었나 //.....

5, 직업이란 천하대본 거룩할손 로동인줄 / 이와가티 몰랐스니 그무엇을
알엇스리 / 한올님이 사람내로 세상만물 맞기시며 / 벌어먹기 조흐라고 손과
발을 주시었네 / 일하기가 참실컸던 밥먹기를 굶칠지라 //

6, 시대한번 쏘밭귀니 로동세월 닥쳐왔네 / 직업위해 일을함은 괴롬썬만
인줄아나 / 자미들여 하여보면 괴롬두곤 즐김만네 / 일하고나 밥맛잠맛 무슨
맛이 그러하리 / 신태(신체)건강 언제던지 마음단련 절로되네 / 여러분아 벗
임내야 나아가차 일터으로 //

일하기를 싫어하고 천시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역설하는 4.4조의 노래이다. 이 곡이 수록된 1920년대는 천도교단 내에서 신문화운동이 본격화될 때로, 노동운동도 그 중 한 갈래였다. 《월보》 제153호(1923.6.15.)부터 ‘단편시보(短片時報)’란이 개설되어 당시의 시사

32) 1941년과 1974년에 천덕송을 보완하여 발간하면서, 기존의 곡과 새로 작곡된 곡들을 모두 4부합창으로 편곡하여 수록하고 보급하였다. 해방이후의 천덕송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82~89쪽 참조.

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1923년 하반기에는 여직공들의 동맹파업 기사 등 노동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속적으로 싣고 있다. 당시 천도교단이 노동자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동향이 반영되기도 한다.

제135호(1921.11.15.) 46쪽: <人乃天의노래> / 何心齋人

못노라 靑年男女야-大丈夫하는일이, / 그무엇이라하드나? 劍이라드나? 銃이라드나? / 아니다 오는世上의丈夫事業은人乃天뿐인가하노라 //
 붙어오는世上消息 平和-하기로, / 나는叮嚀밧엇더니 말平和가 날속인다,
 / 이後란 아모말도밧지말고人乃天平和만바라리라 (8절까지 있음.)

제286호(1936.5.15.) 25쪽: 꽃봄노래(花春歌) / 음성학인

二 인내천주의로배를지어, 포덕광제로뚫을달어. 사세신성사가함장되여, 삼백만교도를시렀이니. 제야무리히틀러무소리니의폭풍탄우가일지라도, 배파선하기는중천니고루나.....

四만승천자진시황은, 봄을흔자질기라고 불사악을구하다가, 등남등너다버리고.....독일황제카이젤은, 부귀홀노누리라고 세무이왕선언하고, 장금양양돌출타가. 조밥먹구잇었으니.....”

(*제5절까지 있으며, 뒤로 갈수록 길어짐)

<人乃天의노래>와 <꽃봄노래(花春歌)>는 다소 변형된 4.4조의 노랫말로, 각 구절이 3~5로 변화되고, 각 절의 끝부분이 확장되었다. <人乃天의노래>는 곡명에서 보이듯 인내천주의(人乃天主義)를 강조하면서, 무기가 아닌 인내천주의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꽃봄노래>는 한문고전에 나오는 각종 구절과 아울러 히틀러, 무소리니, 진시황, 카이젤 등이 나열된 점이 주목된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이 종결된 후, 전 세계

적으로 평화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예이다.

제151호(1923.5.15.) 51쪽: <宗學院歌>

一, 五萬年无極大道를 / 天下에 넓히 퍼려고 / 모헛네우리무리들 / 宗學院旗
발미테로모헛네 / 마름도무거울시고 / 갈길도遼遠하고나

二, 듯느나世界蒼生の / 塗炭에우짚는소리 / 人乃天眞理의웨침 / 웨치며나
아가거라나아가 / 救援은東方으로서 / 온다고기별傳하라

三, 쌍우에한울나라를 / 이룩할우리무리니 / 한몸을도라볼것가 / 목숨도임이
바춧네바춧네 / 할일도거룩한지고 / 運數도皇皇하고나

71쪽: 宗學院卒業式 “三月二十四日에宗學院速成科第一回卒業式과預科
修業式을 本教堂內에서舉行하다定刻인上午十一時가되매卒業生과修業生
一同의意味집흔校歌合唱이잇은 後.....”

‘중학원’은 교인들에 대해 교리·교사 학습을 담당하는 기구로, 같은 호에 중학원 졸업식 관련 기사가 난 것으로 미루어 중학원 졸업식에서 부른 중학원의 교가로 보인다. <宗學院歌> 역시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하여, 개인적 안일을 떨치고 인내천진리로써 도탄에 빠진 세계창생을 구할 것을 독려한다. 이 곡은 넷째 구에서만 규칙적으로 3.5.3의 운율을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3.5조로, 4.4조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곡들은 모두 4.4조이거나, 4.4조가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율과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면, 아래는 첫 구절만 2·2·2이고, 나머지는 각 구절이 4~6자로 구성된 <天上은地上으로>이다.

제146호(1922.11.15.) 56쪽: <天上은地上으로> / 黃澤善

一, 自覺!!自覺!!自覺!! / 우리同胞은自覺할지로다 / 天上에玉京이어디잇스
며 / 天上에天堂이어디잇스며 / 天上에極樂이어디잇스며 / 天上에神仙이어
디잇스라

二, 自覺!! 自覺!! 自覺!! / 우리同胞는自覺할지로다 / 地上에玉京이잇슴을알며 / 地上에天堂이잇슴을알라 / 地上에極樂이잇슴을알며 / 地上에神仙이잇슴을알라

三, 自覺!! 自覺!! 自覺!! / 우리同胞는自覺할지로다 / 人乃天은地上玉京이며 人乃天은地上天堂이다 / 人乃天은地上極樂이며 / 人乃天은地上神仙이다

내세의 낙원을 추구하지 않고 지상천국건설을 목표로 하는 천도교의 교리를 담은 내용이다. 대개 6.5는 7.5의 변형인 경우가 많은데, 7.5는 뒷구절이 앞구절보다 짧으며, 3음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天上은地上으로> 각 절의 둘째구 ‘우리同胞는自覺할지로다’는 5.6이고, 제3절 3~6구는 4.6으로, 뒷구절이 더 길며, 이런 경우는 3음보로 보기 어렵다. 또 각 구절이 4~6자라는 점에서 7.5조보다는 5.5조의 변형에 가깝다.

한편 7.5조의 운율을 뚜렷이 보이는 곡들도 눈에 띈다.

제124호(1920.12.15.) 39쪽: <우리의노래> / 張小流

一, 雄壯한山氣가진 龜尾의되는 / 春夏秋冬四時節 溫冷寒暑의 / 고로움지못하는 氣候中에도 / 千年萬年五萬年 그대로놉하 / 奇狀한이山水로 인연되야서 / 無極大道天道教 發祥되였다

三, 신산한風霜이야 엇지이로다 / 紙筆로기록할수 잇슬가보냐 / 大神師는大邱의 장대우에서 / 貴重한寶血로써 天道막꿨다 / 아아-오로지다 蒼生을爲해 / 貴重하신生命을 이슬과갓치 (*8절까지 있음)

제250호(1931.10.15.) 1쪽: 布德宣傳歌 / 玄極

一, 人類의光明은 東方으로서, 光明은우리가 널니퍼치네. 無窮한그光明 無窮히퍼면, 無窮한이世上 無窮한樂園.

三, 天國建設우리일 일은맞브다. 동무여힘모와 일어서하세. 살길찾는蒼生들 이리로오라. 弓乙旗밧호로 몰니여오라.

(曲은天德頌第十四우리에길曲)

<우리의노래>는 ‘아아-오로지다 蒼生을爲해’에서 1자가 줄었을 뿐 전체가 7.5조로 되어있다. <布德宣傳歌>는 7.5보다 6.5가 많은, 7.5조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布德宣傳歌>의 끝부분에 ‘곡은 천덕송 제14장 <우리의길>에 붙여 부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천덕송뿐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개사곡이 유행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7.5조의 변형된 형태도 보인다.

제244호(1931.4.20.) 1쪽: 天日頌(歌) / 林然
 一, 노이무공한울님 이날선생맛나서 뜻이루섯네.
 오랜선천헛되히 헛수구만하신님 오늘와서야,
 그큰뜻을이루니 깃브긴들얼마나 깃브섯스랴.
 그큰뜻을바드신 우리선생깃봄은 오죽헛스랴. (*5절까지 있음)

<天日頌>은 최제우의 한울체험을 노래한 곡으로, 유일하게 7.7.5조의 특이한 운율을 보인다. 이는 7.5조에서 7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율과 관련하여 초창기의 창가와 개화가사를 잠시 살펴보겠다. 아래는 최초의 창가로 알려진 <황제탄신경축가> 및 구한말의 창가와 개화가사이다.³³⁾

<황제탄신경축가(皇帝誕辰慶祝歌)>(1896)

1. 뉘흐신 상주님 / 즈비론 상주님 / 궁홀히 보쇼셔 / 이 나라 이 ○을 / 지켜주옵시고 / 오 주여 이 노력 / 보우호쇼셔.
2. 우리의 덕군주 / 폐하 만만세 / 만만세로다 / 복되신 오늘날 / 은혜를 나리사 / 만수무강케 / 향야 주쇼셔

33) 황제탄신경축가: 1896년 7월 25일 당시 고종황제의 탄신기념일을 맞이하여 새문안 교회에서 황제탄신경축회를 열고 이 행사에서 부를 창가를 만들었다. 5편으로 되어있으며, 영국 국가의 가사를 우리말로 고친 것이다. 곡명 옆의 괄호는 발표 시기. 이하 인용문은 모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학도가>(1904) 김인식 작사/작곡

1. 학도야 학도야 저기 청산 바라보게 고목은 썩어지고 영목은 소생하네. 2. 동방의 대한의 우리 청년 학도들이 놀기를 좋아말고 학교로 나가보세.

「권고현내각(勸告現內閣)」, 《대한매일신보》(1909.1.30.)

이완용씨 드르시오 총리대신 더 지위가 /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 책임이 었더
 흥가 / 수신제가 못한 사람 치국인들 잘홀손가 / 전일사는 여하던지 금일부
 터 회개헌여 / 가정기풍 바로잡고 백도정무(百度政務) 유신헌야 / 중흥공신
 되어보소

<황제탄신경축가>는 3.4/4.4조에서 다소 벗어나기는 했으나 7.5조와는 거리가 멀며, 아래의 두 편은 3.4/4.4조이다. 민요, 가사, 시조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나 구비문학은 거의 4.4 또는 3.4조에 2음보이고, 7.5조에 3음보는 보이지 않는다. 전통 시가에 없던 7.5조가 출현한 것은 일제강점기 전후로, 최남선의 창가 <한양가>(1905), <경부철도노래>(1908), <세계일주가>(1914)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부철도노래>는 일본의 <철도창가(鐵道唱歌)>(1900)³⁴⁾를 모티브로 하였는데, 이 <철도창가>는 이상준의 『최신창가집(最新唱歌集)』(1918)에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 벽상에 괘종을 들어보시오”로 시작되는 <학도(學徒)>라는 노래로 수록되기도 했다.³⁵⁾ <철도창가>도 7.5조이며, 행진곡풍의 4/4 또는 2/4에 잘 부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1920년대에는 일제의 무단통치 정책이 문화통

34) <철도창가>는 오오와다 타케키(大和田 建樹)가 작사하고 오오노 우메와카(多 梅 稚)가 작곡하였으며 1900년(명치 33) 5월에 출판하였다. 문화원형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76457&cid=49330&categoryId=49330>

35) 송방송, 『한겨레 음악대사전』 하권,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1988쪽 및 문화원형백과 참조. 현재 불리고 있는 경전 「천덕송」 70쪽의 <목적풀이>도 <철도창가(鐵道唱歌)>에 노랫말만 바꾼 것이다. 민족주의 진영 깊숙이 암암리에 파고든 일제의 문화정책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치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치로 바뀌며, 그 이후 7.5조의 출현은 더욱 빈번해진다. 1920년, 『창조(創造)』에 <낭인(浪人)의 봄> 등을 발표하며 데뷔한 김소월의 시에도 <진달래꽃>, <개여울>, <가는 길> 등과 같은 7.5조가 많으며, 1923년 색동회가 결성된 후 발표된 윤극영의 <반달>, <설날>, 윤석중의 <따오기>, <낮에 나온 반달> 등 7.5조의 동시, 동요도 많아진다. 1920년 이후 천덕송에서 7.5조의 운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부합한다.

우리말의 구조가 7.5조에 맞추기 용이한데도 민요·내방가사 등의 자연발생적 시가 장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작품에는 7.5조가 많이 보이는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등 일본의 문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시(와카·세도카·하이쿠 등)는 모두 5와 7의 운율로 구성된다.³⁶⁾

<철도창가>의 예에서 보듯 7.5조는 일본의 전통 운율을 4/4나 2/4의 박자구조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7.5조가 우리민족의 전통운율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제가 의도적으로 유포한 운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월보》에 나타난 천덕송들은 노랫말에서 종교적 내용뿐 아니라

36) 와카(わか, 和歌)는 특히 6~14세기의 궁정시를 말한다. '짧은 노래'라는 의미의 단카(たんか, 短歌)는 일본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조카보다 더 오래되고 하이쿠에 선행한다. 현재까지 시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계승되고 있으며, 5·7·5/7·7음의 5도막으로, 전부 31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긴 노래'라는 의미인 조카(ちょうか, 長歌)는 길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5·7음으로 된 행이 이어지며, 마지막 행은 7·7음으로 되어 있다. '첫머리 반복시'라는 세도카(せどうか, 旋頭歌)는 5·7·7/5·7·7음으로 된 연구를 이루고 있다. 조카와 세도카는 8세기 이후부터 거의 쓰이지 않았다. '연시'라는 의미의 렌가(れんが, 連歌)는 세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시인들이 5·7·5음과 7·7음을 교대로 읊는 시의 형태인데, 엄격한 규칙에 따른다. 일본 시는 대개 매우 짧은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5·7·5음의 하이쿠(はいく, 俳句)로 서서히 축소되었다. Daum백과 및 일본어사전 참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2186a>

<http://dic.daum.net/index.do?dic=jp>

일본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자존을 회복하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다만 그 틀에서는 일제의 의도가 부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노래들 중 <오관노리 五款歌>, <무극송>, <人乃天의노래>, <宗學院歌>, <天上은地上으로>, <우리의노래>, <布德宣傳歌>, <天日頌>은 지금은 전혀 부르지 않는 노래이다. 천덕송을 다양화하기 위해 가락을 잃어버린 이들 노랫말에 새로운 선율을 붙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듯하다.

IV. 천덕송 관련 《월보》 기사

《월보》에 수록된 다양한 천덕송 관련 기사들은 앞서 살펴본 천덕송의 면면이 주변 환경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천덕송 관련 주요 기사들을 발췌하고, 이를 주요기념일 및 각종 행사를 중심으로 분류한 후, 천덕송의 용도, 위상과 역할, 그리고 시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1. 3대 기념일(천일, 지일, 인일)

아래는 천일기념일(4.5) 관련 기사들이다.

제9호(1911.4.15.) 46쪽: 天日紀念盛況 “四月五日은吾教元祖 /37) 水雲大神師의受道호신第五十一回天日紀念式이라.....一般教人은教日紀念歌를齊唱호후.....同七時에更히總部內에會集호야天德頌을奏호야.....”

37) 기사 내용 중 교조의 호칭 앞에서는 줄을 바꾸어 호칭이 맨 상단으로 가게 한 곳이 있는데, 이처럼 줄바꿈 한 곳은 ‘/’로 표시하겠다.

제21호(1912.4.15.) 44~45쪽: 天日紀念盛況 “.....敎理의說明을畢후天日紀念歌를齊唱하고.....”

제33호(1913.4.15.) 39쪽: 天日紀念 “.....說明이有후天德頌을齊唱하고.....”

제175호(1925.4.15.) 30쪽: (중앙회보) 六十五回의天日紀念 “.....天日紀念日임으로.....受道紀念頌으로式을閉하였는데.....”

제295호(1937.5.15.)40쪽: (地方教會通信) 天日紀念祝賀盛況 / 全州教會 “.....이어서 敎理說明이있은後에 天德頌奏樂하여 數種을하고 心告로式을맞이게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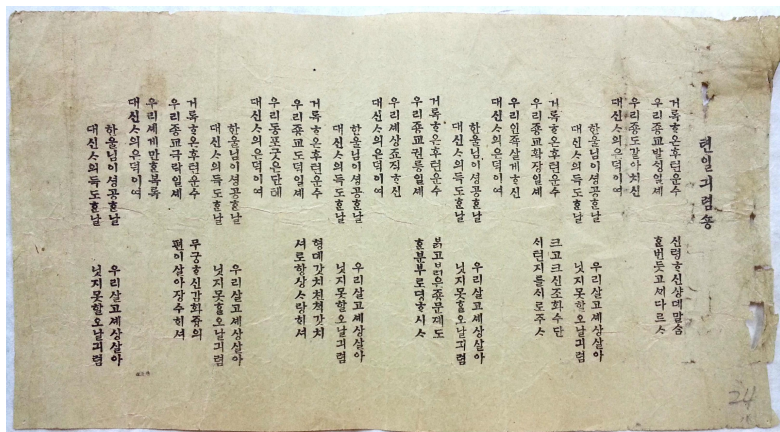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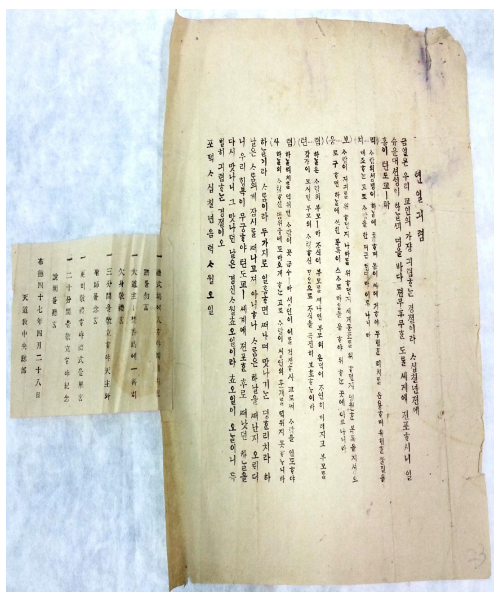
제9호에 ‘敎日紀念歌를齊唱후’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교일’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여 반포한 12월 1일로, 천일기념일에 <교일기념가>를 불렀다는 점이 의아하다. 이 당시에 이미 <천일기념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천일기념가>는 현재로서 최초의 천덕송이다. 1906년 천일기념일에 <천일기념가>가 불린 사료가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진 1>이 바로 그것이다.³⁸⁾

<사진 1>의 위쪽에 ‘포덕스십칠년음력스월오일’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포덕원년이 1860년이므로 포덕47년이면 1906년으로, 현재 발견된 사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천덕송이다.³⁹⁾ 따라서 1911년 천일기념일에는 당연히 천일기념송을 불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떤 이유로 <교일기념가>를 불렀다고 기록되었는지, 실제로 그 곡이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8)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소재 천도교중앙총부 자료실(수운회관 5층) 소장본.
39) 김광순, 「東學音樂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53쪽에는 최초의 천덕송이 1907년의 <천덕사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논문은 1906년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 쓰였다. 그리고 57쪽에는 <천일기념가>가 1912년부터 불렀다고 되어있는데, 이 또한 1906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1> 2016년 12월 천도교중앙도서관 설치기념 전시회에 전시된 최재운 선도사의 기증자료



이상과 같이 천일기념일에는 <천일기념가>를 비롯하여 <교일기념가>, <수도기념송>, 기타 여러 가지 천덕송을 붙렸다.

다음은 지일기념일(8.14) 관련 기사이다.

제26호(1912.9.15.) 42쪽: 地日紀念式盛況 “去月十四日은本教二世教祖海
月神師의承統호옵신 第五十回地日紀念日인디.....教理를說明호고紀念歌를
齊唱호야一大盛況을모호앗더라.”

제61호(1915.8.15.) 46쪽: 地日紀念式 “.....齊齊整整히天德頌中에式을閉
호다”

제26호에 보이는 ‘기념가’는 <지일기념가>로 추측되는데, 이는 현재 부르는 <지일기념가>와는 다른 곡이다. 현재 부르는 곡은 1946년에 조 기간·최창파가 작사하고 서영모가 작곡한 곡이기 때문이다.⁴⁰⁾

다음은 인일기념일(12.24) 관련 기사들이다.

제6호(1911.1.15.) 59쪽: 人日紀念盛況 “十二月 二十四日은我 義庵聖師
의承統호옵신第14回人日紀念日이라.....開式의趣旨를說明호後一般教人은
人日紀念歌를唱호고學生諸氏는天宗新樂을奏호야一大盛況을모호앗고.....”

제18호(1912.1.15.) 70쪽: 人日紀念盛況 “.....一般教人이人日紀念歌를齊
唱호야.....”

제30호(1913.1.15.) 44쪽: 人日紀念盛況 “.....教理를說明호後瀏亮호音樂
中에紀念頌을齊唱호야.....祈禱에對호說明이有호後紀念頌을齊唱호고全十時
에閉式호다”

1911년에 <인일기념가>와 <천중신악>, 1913년에 <기념송>을 부른 기록이 보인다.⁴¹⁾ ‘學生諸氏는天宗新樂을奏호야’라는 구절에서 ‘唱’이 아닌 ‘奏’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奏’는 노래가 아닌 ‘연주’를 의미했을 수

40) 김광순, 앞의 논문 84쪽 참조. 경전 「천덕송」 54쪽에 수록.
41) 김광순, 「東學音樂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57쪽에는 <인일기념가>가 1913년 부터 불렀다고 되어있으나, 1911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 있다. <천종신악>은 <악보 1>에서 살펴본 <하늘님의덕>이다.

2. 기타 기념일(교일, 도일) 및 기도일

다음은 교일기념일(12.1) 관련 기사이다.

제17호(1911.12.15.) 69쪽: 教日紀念盛況 “布德五十二年十二月一日은教日(本教의名稱과目的을大告天下하日)인故로.....同日下午七時에는總部內에懸燈의壯觀과歌頌의奏樂이有하야一大盛況을모하앗더라.”

앞서 제9호 46쪽에서 4월인 천일기념일에 <교일기념가>를 제창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같은 해 12월에 수록된 위 인용문의 ‘歌頌’에도 <교일기념가>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도일기념일(1.18) 관련 기사로, 천덕송을 제창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곡명을 알 수 없다.

제31호(1913.2.15.) 41쪽: 記念式舉行 “一月十八日은我 大道主의옵서大道主承統하옵신第六回紀念日식인 故로.....天德頌을齊唱하야.....”

다음은 기도일 관련 기사이다.

제118호(1920.6.15.) 101쪽: 祈禱式의 狀況 “本月二日은天道教의第二世教祖海月神師還元하신第二十二回紀念日이라.....式辭를告한后誠團이一齊히呪文과天德頌을誦하고.....”

제264호(1933.3.25.) 60쪽: 慰靈式舉行 “三月十日은 一般殉教人의 慰靈式舉行日임으로.....青年同盟京城支部女性合唱團의 慰靈頌이잇은後 莊嚴裡에서 閉式하였다”

제118호에는 2세 교주 최시형이 순도한 제2대 기도일(6.2)에 <주문>과 천덕송을 제창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제264호에는 최제우가 순도한 제1대 기도일(3.10)에 일반 순교인에 대한 위령식을 함께 거행하며 <위령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3. 각종 행사

다음은 원족회⁴²⁾ 관련 기사이다. 천덕송, 회가, 선전가, <오교역사가(五敎歷史歌)>, <소년회가>, <종교발전가(宗敎發展歌)>, <오관가> 등이 보인다.

제141호(1922.5.15.) 88쪽: 春季遠足會 / 少年會員 李定鎬

(89~91쪽) “金기전先生님에人乃天과 同□一切라는演題로필한敎會員一同에唱歌調로나가는天德頌에浪續에소리는.....汽車는살과갓치질주함을차라會歌로벗을삼으며오게되엇섯다.....停車場出口에나서다시會歌를홀씩.....”

91~94쪽: 同樂遠足記 / 兼二浦⁴³⁾少年同樂會 “.....宣傳歌一篇을 맞춰자마자.....行伍를端正이하야 宣傳歌를合唱하면서.....宣傳歌合唱으로開會되엇다.....康明華孃의獨唱‘五敎歷史歌’는그야말로 拍手大喝采이엇다.....”

96쪽: (地方通信) 少年會講演狀況 “天道敎平壤少年會에서는.....遠足會를開催하얏난디.....少年會歌合唱으로開會를告한後.....吳敬玉孃의자미스러운古談과問問宗敎發展歌五款歌等並唱으로써稀有한盛況을呈하고.....”

제141호 첫머리에 보이는 ‘唱歌調로나가는天德頌’이라는 구절이 주목된다. 이 시점은 일제의 통치전략이 문화통치로 바뀐 후 각계각층에서 계몽운동이 전개되고, 천도교단 내에서도 신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이다. 당시 창가는 계몽운동의 수단으로 널리 애용되었고, 천덕송

42) 원족(遠足): 기분을 돌리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바깥에 나가 바람을 쐬는 일.

43) 겸이포(兼二浦): 일제 강점기, 황해도에 있는 ‘송림’을 따로 이르던 말.

에도 그러한 당대의 경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행사가 소년회의 행사였으므로 ‘會歌’는 <소년회가>로 추정된다.

앞서 제127호(1921)에서 <오관가>를, 그리고 제250호(1931)에서 <布德宣傳歌>의 노랫말을 살펴본 바 있는데, 위 인용문에 언급된 ‘宣傳歌’ 및 ‘五款歌’가 서로 같은 곡인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살펴본 제250호(1931)의 ‘布德宣傳歌’는 ‘曲은天德頌第十四우리에길曲’이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布德宣傳歌>와 <우리에길>은 노랫말의 운율과 길이가 같으므로 같은 곡에 노랫말을 바꾸어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127호(1921)의 악보 <오관가>는 7.5조 위주이고, 제71호(1916)의 노랫말만 있는 <오관가>는 4.4조이며, 길이도 서로 다르므로 두 곡은 선율도 달랐을 확률이 높다.

<포덕선전가> 또한 운율과 길이가 《월보》의 것과 다른 노랫말이 《신인간》 제10호에 수록되어있어, 곡명은 같으나 서로 다른 곡들이 당시에 공존했음이 확인된다.⁴⁴⁾ 즉 당시의 천덕송은 하나의 곡에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소위 ‘노가바’ 형태와 함께 하나의 곡명에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드는 등 다양한 양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오교역사>와 <종교발전가>는 현재 부르지 않으며, 이 기사에서 곡명만 발견된다.

4. 천도교 의절

다음은 천도교의절에 명시된 <주문>과 천덕송, 기념송에 관한 기사이다.

제178호(1925.7.15.) 24~25쪽: 天道教儀節

一, 侍日禮式 / 侍日禮式은每日曜日上午十一時에教堂又は宗理院에서舉行함 / 執禮一人을定하여 禮式의順次를宣佈함 / 一, 淸水を 奉傳함 / 一, 心告함(布德天下廣濟蒼生の大願으로心告함) / 一, 呪文을三回朗讀함 (至

44) 신인간사, 《신인간》 제10호, 서울: 신인간사, 1927, 37쪽 참조.

氣今至願爲大降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 一, 說教합 / 一, 天德頌
을 합창합 (奏樂) / 一, 心告后閉式합 //

一, 紀念禮式.....一, 禮式時間은上午十一時로합 / 一, 清水를奉奠합 / 一,
心告합 / 一, 呪文을三回朗讀합 (三七字呪文).....一, 紀念頌을합창합 (奏樂
並) / 一, 心告后閉式.....

제191호(1926.11.15.) 24쪽: 天道教儀節改定草案 “.....第四節 紀念과祈禱
式.....天德頌(奏樂合唱) (紀念에는修道紀念頌 祈禱에는還元祈禱頌)”

(*제191호(1927.2.15.)를 통해 공포된 천도교의절에도 천덕송 관련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매 시일과 기념식에서 청수봉전, 심고 후에 <주문>을 3회 제창하고,
기악 반주에 맞추어 천덕송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절은 현재
도 유지되고 있다. 제191호에는 기념일에 <수도기념송>을, 기도일에는
<환원기도송>을 부르라고 명시되어있다.

5. 강연회

천덕송 관련 기사는 특히 부인운동과 관련된 기사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1936년부터 부인운동이 강조되어, 2월부터 지방교회별로 시작하여 전
국 각지에서 강좌가 개최되었다. 과목은 교리, 교사, 천덕송, 교회 상식,
한글 등이었으며, 8월 15일부터 13일 동안은 중앙에서 열린 특별부인강
좌에 1백여 명의 수강생이 참가하였다.⁴⁵⁾

이 해 1월호인 《월보》 제282호의 내용도 부인운동을 중심으로 채워
지며, 「조국을 求한 少女 째·다·크」라는 전기가 2회에 걸쳐 연재된다.
(미완으로 그침) 아래는 부인운동에 대한 기사이다.

제282호(1936.1.15.) 40쪽: 부인운동과 방법 / 성암 김동환 “(41쪽, 44

45) 『천도교약사』 255쪽 참조.

쪽).....부인활동에 있어서도 음악의 도움이있으면 더한창 효력이날것으로 믿는바이다.....우수한 교회에는 대개풍금을 비치하여 시일시간하나 기타의 식에 사용하고있으며.....현재 우리가 부르는 천덕송을 소리판(레코-드)으로 만드러서 유성기에 사용케한다면 천덕송 곡조도 속히배울수 있을뿐아니라.....부인교역자가 쉬회할때에 유성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가정을방문한다면 단순무미 하지아니하고 흥미도있을뿐 아니라.....”

제282호는 선전과 교화에 음악을 적극적으로 써야 함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천덕송을 레코드로 만들고 유성기를 휴대하여 포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부인강좌에서의 천덕송 관련 기사들이다.

제284호(1936.3.15.): 선천교회부인강좌상황(21~22쪽) “.....낮(晝間)에는 교리, 교사, 오관해설, 천덕송연습등이었고 밤(夜間)에는.....천덕송연습이었는데.....천덕송연습을 삼십분동안한후 동네시에 폐회하다.....”

제286호(1936.5.15.): 각지교회의부인강좌(7쪽)

음성교회부인강좌 / 음성교회 “.....히히낙낙 그가운데 (시구시구 좋을시구 이내신명 좋을시구) 라는 대신사의 흥겨운 노래까지 불렀었다.....”

광주교회부인강좌 / 광주교회(15~16쪽)“.....동십일시에 박태원 김정구(金正九) 김화식(金化植) 삼씨의 선창으로 천덕송을 연습하고.....동세시에.....천덕송을 연습하고.....동오시에.....천덕송을 연습하고.....” (16쪽) “.....백분임양(白分任嬢) 김봉군양(金奉君嬢)의 독창이.....박태원 김화식 김정구의 독창이.....김화순양(金化順嬢)의 독창이 있은후에.....”

21쪽: 홍성교회부인강좌 / 홍성교회 “.....교리강사 최준모(崔俊模)씨 천덕송강사 박양신(朴陽信)씨의 교강으로.....”(*서산과 예산도 같은 내용)

제287호(1936.6.15.) 18~29쪽: 각지교회의 부인강좌 (*임실, 전주, 금구, 정읍, 강경, 익산. 천덕송 강사는 김숙. 강연과 천덕송 연습을 겸함.)

제288호(1936.7.15.) 16~22쪽: 각지교회의 부인강좌 (*장흥, 해남, 제천. 천덕송 강사 준암(峻庵) 박한규(朴漢珪))

제290호(1936.9.15.) 19쪽: 특별부인강좌상황 20쪽: (과목은 교리, 교사, 천덕송, 교회상식, 한글이며, 천덕송 강사는 박양신, 김숙)⁴⁶⁾

모든 부인강좌에 천덕송 연습시간이 있으며, 천덕송 책자가 준비물에 포함되고, 박태원, 김정구, 김화식, 박양신, 김숙, 박한규 등 중앙에서 파견한 천덕송 강사가 노래를 지도했음을 알 수 있다.

제290호(1936.9.15.) 19쪽에 8월 15일부터 13일간 열린 ‘특별부인강좌상황’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는데, 참가자들의 토론문과 감상문이 대거 실려 있다. 참가자들의 소속 지역은 경성, 강경, 장연, 음성, 벽동, 선천, 완도, 경성, 전주, 예산, 금천, 용천, 광주, 포천, 안성, 용인, 병동, 초산, 봉산, 충주, 진천, 송화, 은율, 신천, 광죽, 장흥, 이천 등지로, 매우 광범위하다. 당시가 중일전쟁(1937) 직전의 긴장된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전국의 여성들이 각지에서 강좌에 참석하고 또 중앙에 모여 대규모의 강좌를 이어갔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천도교 내에서 최초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여성단체가 결성된 것은 1924년 3월 31일 ‘내수단’의 창단이다. 또 개벽사에서 1922년에 여성잡지 《부인》을 창간하고, 1923년에 이를 《신여성》으로 교체한 후 1934년 8월까지 통권 38호를 발간하고 폐간된 바 있다. 1936년에 전개된 부인강좌는 1920년대 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그러한 여성운동의 맥을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덕송 관련 기사가 부인강좌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여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특히 문화적 방법론을 중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는 1936년의 부인강좌에 이어 열린 음성교회의 특별강좌이다.

제295호(1937.5.15.) 22~23쪽: 음성교회특별강좌 “.....소년부합창대에 천덕송합창으로 식을마치니 때는 하오이시러라.....소년부원 총동원으로 소년가오과가(유희) 천을곡(天乙曲) 금가(유희) 복남이창가 비곡피꼬리노래(회곡)

46) 그 외 수원, 여주, 서산, 예산 등에서도 강좌과목에 천덕송이 포함된다.

독창 합창, 기타 동화 동요등 여러가지 재미스러운 학예가 끝난후.....”

천덕송 합창으로 폐식하는 사례는 앞서도 여러 차례 살펴본 바 있듯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오과가(유희) 천을곡(天乙曲) 금가(유희) 복남이창가 비곡피꼬리노래(회곡)’ 등은 현재는 불리지 않는 곡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소년가’는 앞서 살펴본 <소년 회가>로 추정된다.

6. 광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천덕송」에 대한 광고이다.

제132호(1921.8.15.) 표지 뒷면 광고: (끝부분) 천덕송新刊出來定價三錢 / 京城府齋洞八六番地 / 發賣所 普書館 / 電話一九二五番

제149호(1923.2.15.) 표지 뒷면 광고: 敎書大割引賣出 “.....(끝부분) 天德頌 現用 三錢.....天道教中央總部 布德課” (*150호도 같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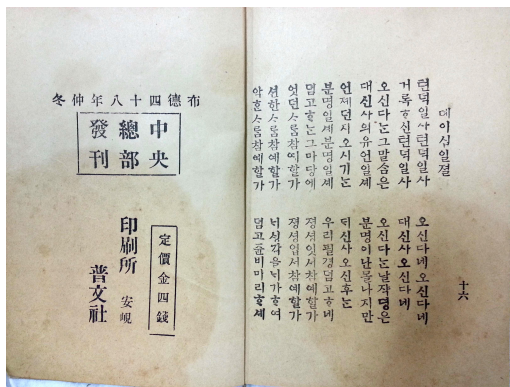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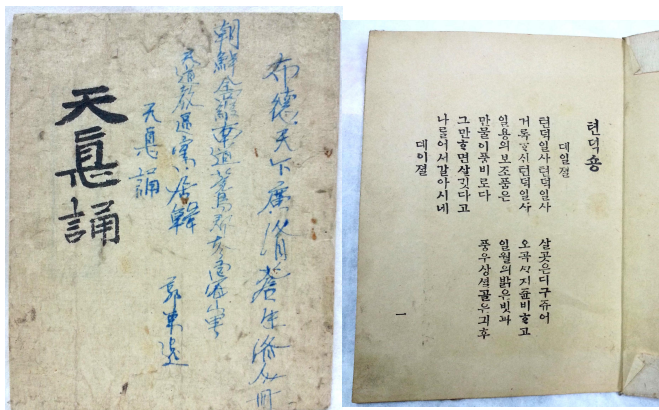
제154호(1923.7.15.) 끝면 광고: “.....이제또『音譜附天德頌』萬餘部를 새로刊出하엿싸오니 敎人되시는이는 帑一部式사가지오 代金은一部三錢式이 외다 / 天道教中央宗理院⁴⁷⁾”

인용문에서 ‘音譜附天德頌’이라는 구절이 주목되는데, 초기의 「천덕송」은 <사진 2>와 같이 <천덕사>의 노랫말만 수록된 소책자 형태였다.⁴⁸⁾

47) 1923년 4월 중앙총부는 중앙종리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천도교약사』 206쪽 참조.

48) 천도교중앙총부 자료실 소장본.

<사진 2> 1907년의 「천덕송」



책자 끝면의 서지정보에 ‘布德四十八年仲冬’이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포덕48년이면 1907년으로, 현재로서는 최고(最古)의 「천덕송」이다. 1921년과 1923년 《월보》에 광고된 「천덕송」은 이와는 다른, 악보가 수록된 책자였음을 ‘音譜附天德頌’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앞서 1910년의 <천중신악>과 1920년의 <우리의길>, 그리고 1921의 <3월10일기도가>·<오관가>·<공락가>의 악보를 살펴본 바 있는데, 1921년 발행 「천덕송」에는 이 악보들이 모두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1년 4월을 끝으로 《월보》에서 천덕송 악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가사만 산견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악보가 수록된 천덕송이 별도의 책자로 판매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 이상 《월보》를 통해 천덕송 악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음은 ‘신 「천덕송」 관련 광고이다.⁴⁹⁾

제242호(1931.2.21.) 표지 뒤 광고 1면: 天德頌 “天德頌이라면우리가侍日마다붙으는由來하던天德頌인줄로아실것입니다그러나안입니다.우리가七十年來로밤낮읽던歌詞八編을후을가르고有名한樂家의作曲을너어서만든新天德頌입니다.方今印刷中이오니(定價은五錢이오代金은必히先金으로하되百部以上을注文할時は二割引)早速注文하시압” 知道觀⁵⁰⁾

제243호(1931.3.15.) 표지 뒤 광고 1면: 天德頌 “新天德頌이아옵니다.天日紀念을爲始하야半島江山이들석하게붙게되엇습니다.七十年來로안방구석에서숨은소리로외이던것이이제는조흔曲調로宇宙가震動하도록붙게되엇습니다.....” 知道觀

1931년에는 용담유사 가사 8편에서 발췌한 노랫말로 작곡한 새 「천덕송」이 책자로 발행되는데, 위 인용문은 이를 광고하는 내용이다. 당시 이돈화가 용담유사 가사 8편에서 노랫말을 발췌하고, 홍난파에게 의뢰하여 12곡을 작곡했다. 《월보》에는 이 악보들이 수록되지 않았다. <악보 8>은 새 「천덕송」에 수록된 <교훈가(其一)>이다.⁵¹⁾

49) 김광순, 「東學音樂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82쪽 각주에는 이 부분의 서지정보가 《월보》 ‘제42호(1930), p.1’과 ‘제43호(1930), p.1’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1931년에 발행된 제242호와 제243호로 수정되어야 한다.

50) ‘지도관(知道觀)’은 천도교 신과 중앙총리원에서 1929년 1월부터 시행된 천약에 따라 설치된 편찬 교육부서로, 책임자인 지도관정은 이돈화가 맡았다.

51) 김광순, 앞의 논문, 69쪽에서 악보 인용. 3절 이하는 악보와 분리 수록함.

<악보 8> 1931년 「천덕송」 수록 <교훈가(其一)>

교 훈 가 (其-)

발행 : 이돈화
작곡 : 홍난파

1. 한 줄보 - 하성밭 쓸 착한운수 둘러놓고
2. 때 써생각 많은사람 사람없어 이러한가

모래지수 정해내어 자아시 - 자라날때
유도볼도 누천년에 은이역시 다했던가

어느일을 내모르며 백천만사 행하기를
억포창생 많은사람. 내가어찌 받았으며

조화중에 서있으니 낙지이후 짐이로다
이-세상 읽은가삼 내가어찌 있었던고

<악보 8>은 최제우의 가사 교훈가에서 노랫말을 발췌했으며, F장조에 4/4로 작곡되었다. 1931년의 「천덕송」은 1921년과 달리 기독교의 찬송가와 같은 4부합창으로 편곡되었다.

작곡자 홍난파⁵²⁾는 황성기독교청년회 중학부에서 음악공부를 시작한

52) 홍난파(洪蘭坡, 1898년~1941년): 바이올린 연주가·작곡가. 본명은 홍영후, 필명은 나소운. 보통학교를 마치고 1909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중학부에 입학하면서 서양음악을 공부했고, 그 후 조선정악전습소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했으며, 1918년 일본 동경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 현 동경예술대학)에서 2년간 수학하였다. 1920년 김형준(金亨俊) 작사 <봉숭아>를 작곡하여 발표했다. 1922년 우리나라

서양음악가로, 기독교 찬송가의 체재를 종교음악의 롤모델로 여긴 듯하다. 그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유지되어, 지금 천덕송의 반주는 거의 다 기독교 찬송가와 같은 화성법에 근거한 4성체이다. 그가 작곡한 12곡은 현재 경전 「천덕송」에도 수록되어있는데, 12곡 중 7곡은 5음계 장조이고, 5곡은 7음계 장조이며, 굿거리나 중모리 풍의 리듬(6/8, 6/4)을 가진 곡이 4곡이다.⁵³⁾ 5음계와 전통장단 풍의 리듬은 부분적으로나마 민족적 양식을 반영하고자 의도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천도교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라는 점과, 흥난과 자신이 과거 조선정악전습소에서 국악을 접한 경험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월보》 수록 악보의 곡들과 마찬가지로 1931년 「천덕송」 수록곡들 또한 전통어법보다는 5음계 장조에 해당하며, 리듬과 편곡 체재 등 모든 요소에서 서양음악어법이 지배적이다. 주지하다시피 개화기 이후 신문물의 수용이 강조되면서, 전통은 계승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그러한 당시의 경향을 천덕송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근대적 양식의 천덕송은 여타 종교들의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도교에서 기존의 민요 및 가사와 차별성을 가진 근대적 양식의 곡은 <하늘님의 덕>(1910)을 비롯하여 1920년과 1921년에 여러 곡이 발표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한편 근대적 찬불가(백용성의 악보)는 1927년에, 원불교 최초의 성가(회가)는 1933년에, 대종교의 한얼노래는 1942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당시의 천덕송이 매우 앞서가는 종교음악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오선보를

최초의 음악잡지『음악계』를 창간했다. 1926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고등음악학교에 입학했고, 1929년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중앙보육학교 교수가 되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하권, 963~67쪽 참조.

53) 구체적으로는 <교훈가(其二)> A b 5음계 4/4, <안심가> G 5음계 4/4, <용담가> F 5음계 6/8, <몽중로소문답가> G 7음계 4/4(못갖춘마디), <도수사> B b 5음계 6/4, <권학가(其一)> G 7음계 4/4, <권학가(其二)> D 7음계 4/4, <도덕가> G 7음계 4/4(못갖춘마디), <홍비가(其一)> G 5음계 4/4, <홍비가(其二)> D 7음계 4/4, <기림송> F 5음계 6/8이다.

사용한 서양음악적 단선율로 《월보》에 수록되었던 천덕송이, 1931년에 흥난파에 의해 편곡되면서 찬송가식 4성체 체재를 갖추는데,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당시 타 교단의 종교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⁵⁴⁾

흥난파의 친일행각은 1937년 조선총독부 주도로 결성된 친일단체 조선 문예회에 가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38년에는 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 1941년에는 조선음악협회 등의 친일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했다.⁵⁵⁾ 천도교단에서 흥난파에게 천덕송 작곡을 의뢰한 1931년 즈음은 그가 아직 본격적인 친일행각을 하기 이전이나, 결과적으로는 반외세자주독립을 추구하는 종교의 노래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모순된 역사가 되고 말았다.

아래는 새 천덕송을 접한 교인의 감상문이다.

제287호(1936.6.15.) 22~23쪽: (전주교회) 단암형에게(강좌를맞이고) / 이성수 “.....더욱 현실께서 신곡조로 부르시는 천덕송에는 일반이 여간 재미있게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노인부인한분은 흥에넘치고 또한 취중에 춤을추신 분까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일반교인은 기쁨과 질거움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동니에서는 녀학생들까지와서 날이저물도록 재미있게 천덕송을 합창하고 하였습니다.....신천덕송에 오늘에야 우리교가 혁신이되는 구나하는 감상이 이러남은 제뿐아니라 일반이 다같이 느낀바입니다.....또 천덕송으로 말하면 전일에는 구식서당에서 글익는 식이었는데 금일 신곡조야말로 현대에 부합된 곡조로서 하루속이 일반교인에게 보급되지 아니하면 아니될줄로 압니다.....(23쪽).....그리고 다음시일부터는 신천덕송으로 시일을 보도록 결정이되었습니다.....”

54) 변규백, 「신종교와 음악」, 《신종교연구》 제7집, 58쪽; 김찬기, 「천도교음악(천덕송) 형성과정의 연구」,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제1집, 제2권, 161~162쪽 참조.

55) 두산백과 참조.

당시 교인들이 새 천덕송을 매우 반겼으며, 교인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부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천덕송 광고는 이후로도 지속되어, 가끔 쉴 때가 있어도 영인본의 마지막 본인 제296호까지 꾸준히 《월보》의 끝면을 장식한다. 그만큼 천덕송을 중시했다는 의미이다.

이상 《월보》의 기사들을 통해 천도교의 각종 기념일과 기도일, 시일 및 강연회 등에 천덕송이 항상 수반되었으며, 창가풍의 천덕송, 노가바 형태의 천덕송 등 그 양상과 종류가 다양하고,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또 당시의 새로운 경향이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그러한 점은 타 교단의 종교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덕과 교화에 적극적으로 천덕송을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V. 맺는말

일제강점기의 천덕송에 대해 《천도교회월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월보》에 나타난 천덕송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월보》에는 악보가 수록된 경우와 노랫말이 수록된 경우, 그리고 천덕송 관련 기사들이 있다. 음악양식에서 부분적으로 5음계나 전통장단 풍의 리듬이 쓰였으며, 전통적 요소가 제대로 계승되고 있지는 못하다. 운율에서 전통적 4.4조가 계승되는 곡들도 악보에 나타난 음계 · 리듬 등의 음악적 요소에서는 이미 서양음악어법이 지배적이다. 특히 1931년 이후로 기독교의 찬송가식 4성체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신문물 수용은 강조된 반면, 전통은 계승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당시의 경향을 보여준다.

노랫말에는 종교적 내용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자존을 회복하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다만 그 틀에서 일제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

는 7.5조의 운율이 1920년대를 기점으로 변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천덕송은 3대 기념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과 기도일, 시일식, 원족회 등 각종 행사, 그리고 강연회 등에 항상 수반되었으며, 창가풍의 천덕송, 노가바 형태의 천덕송 등 그 양상과 종류가 다양하고, 그 위상이 매우 높다. 특히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덕과 교화에 적극적으로 천덕송을 활용하였다.

천덕송은 종교음악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당시 격변하고 있던 국내 외의 동향과 시대적 요구를 교리와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교인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신앙에서 더 나아가 시대와 함께 할 것을 적극 권하였다.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은 그의 법설 「용시용활(用時用活)」에서 도는 때와 짝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죽은 물건과 다름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제3세 교주 손병희는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의 선봉에서 활동하며 3.1운동을 주도하였다. 천덕송의 시대성은 이러한 스승들의 뜻을 잇고 있다. 기성 종교의 기복성(祈福性)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통한 자아완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개혁까지 노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천덕송은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근대적 요소는 적극 반영하였으나, 민족적 양식 및 전통적 요소를 계승하지 못한 점은 천도교가 대표적인 자생 종교라는 점에서 다소 유감이다. 당시 천덕송이 기독교식 4성체로 편곡되는 등 서양음악양식을 따른 것은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시기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천도교의 독자적인 음악문화를 성공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정체성의 문제는 한 집단의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유지라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며, 천도교 천덕송이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송방송. 『한겨레 음악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2.
- 《신인간》 제10호. 서울: 신인간사, 1927.
- 윤석산. 『천도교』.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2.
- 이광순. 『天道教會月報 影印本目次』. 서울: 天道教中央總部, 1980.
- 이동초 편저. 『天道教會 宗令存案』.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5.
-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6.
- 천도교중앙총부. 『天道教會月報』 영인본, 총26권. 서울: 天道教中央總部, 1976.
- 천도교중앙총부 편저. 『天道教經典』.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1.

〈논문〉

- 김광순. 「東學音樂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_____. 「동학(천도교)사상과 민족 교회음악 1」. 《음악과 민족》 제8집. 서울: 민족음악연구소, 1994.
- _____. 「동학(천도교)사상과 민족 교회음악 2」. 《음악과 민족》 제9집. 서울: 민족음악연구소, 1995.
- 김응조. 「천도교 기관지 변천사」. 《신인간》 통권 제700호. 서울: (주)신인간사, 2009.
- 김정인. 「1910년대 『天道教會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韓國文化》 제30집.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
- 김정희. 「천덕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1)」. 《신인간》 7월호, 통권 제800호. 서울: (주)신인간사, 2017.
- _____. 「천덕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2)」. 《신인간》 8월호, 통권 제

801호, 서울: (주)신인간사, 2017.

김찬기. 「천도교음악(천덕송) 형성과정의 연구」.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제1집, 제2권.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2011.

박상란. 「근대전환기 영적담(靈蹟談)의 양상과 의의- 『천도교회월보』 소재 “영적실기(靈蹟實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5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변규백. 「신종교와 음악」. 《신종교연구》 제7집. 한국신종교학회, 2002.

우수영. 「『천도교회월보(天道教會月報)』 수록 소설의 담론 전개」. 《현대소설연구》 제6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최민국. 「東學音樂과 龍譚遺詞研究」.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3. 인터넷사이트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문화예술택과. <http://culture.go.kr/knowledge/encyclopediaList.do>

문화원형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9190&categoryId=49190>

문화콘텐츠 용어사전.

<http://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dictionaryView.do?>

Daum백과사전. <http://100.daum.net/>

Daum일본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jp>

Daum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 Abstract

A Study on *Cheondeok-Song*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hown on *Cheondo-Gyohwe-Weolbo*

Kim, Jeong-hee^{*}

The *Cheondeok-Song* (religious songs of *Cheondo-Gyo*)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hown on *Cheondo-Gyohwe-Weolbo*, the monthly magazine of *Cheondo-Gyo* Church were examined in this pap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scores of songs, lyrics, and articles related to *Cheondeok-Song* in the monthly magazine. The five-tone scale or Korean traditional rhythm style was partly used, but western music form was dominant in most of the songs. Especially the four-part form of Christian hymns became usual since 1931.

This shows how people thought of the new trends. The reception of the new trends being emphasized, but they recognized tradition as an object of overcoming rather than of succeeding.

The lyrics contain religious contents and the spirit of the period to restore national self-respect and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through overcoming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rhythm of seven and five syllables which is suspected to have been introduced by Japan was spread after the 1920s.

Cheondeok-Song have been sung in the three grand

* Korean music composer, Folk song researcher, Lecturer,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niversaries and other anniversaries, the Prayer-day, in *Cheondo-Gyo* church services on Sunday, ceremonies, and in lecture. There are various kinds of songs and their status is very high. Especially, *Cheondeok-Song* have been used actively in mission works and edification for women.

Cheondeok-Song actively reflect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demands of that times. They could sing self perfection through enlightenment and also the social reform based on it. These are the reasons why I think *Cheondeok-Song* of those days are so important.

Cheondeok-Song reflected modern elements actively, but couldn't succeed the national form and the traditional elements properly. The problem of cultural identity is not only a specific group's but also that of the whole humanity of maintaining cultural diversity. This is also a task that *Cheondo-Gyo Cheondeok-Song* have to solve in the future.

Key words : *Cheondo-Gyo*, *Donghak*, *Cheondo-Gyohwe-Weolbo*, *Cheondeok-Song*,
Japanese colonial period

■ 이 논문은 2017년 6월 30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3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8월 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